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독일 아들러스호프 첨단과학단지는 독일경제의 버팀목이자 청년창업의 최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주거공간 창업 최적화...한전 에너지밸리 모범을 보다

광주형 청년창업 모델을 찾아서

<10> 독일 아들러스호프 첨단과학단지

1900년대 항공연구로 출발...‘유럽의 실리콘밸리’ 성장
정부 출자 유한회사 컨설팅 지원...신생기업 90% 생존
대학들, 인재 배출·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환경 조성



훔볼트대 자연과학 캠퍼스 전경.

국내에 있는 과학단지나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와는 그 느낌 자체가 달랐다. 한산한 국내 산단 등과 비교될 정도로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았다. 도로 위로 사람을 꼭 채운 트램과 버스가 쉴없이 달리고 있었으며, 각 도로에는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자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세계적인 회사의 로고가 그려진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주변으로 건물을 세우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미 성공한 과학단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확인하던 공장위주 산업단지를 넘어 음식점과 소품 등 각종 편의시설부터 병원과 공원, 문화시설까지 모든 게 구축돼 있었다. 그야말로 도시 속에 또 다른 도시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청년창업가와 연구인력들을 위한 주거용도의 건물도 백백히 들어서 있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차를 타고 약 1시간 떨어진 아들러스호프.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청년창업가들이 모여들면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독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세계 최고의 첨단과학단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역사는 지난 1909년 독일 한스 그라데가 비행기 연구를 위해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오히스탈 비행장에서 독일 최초의 동력비행기 ‘란츠 프레이즈 데어 루프테’를 개발했다. 그 이후 독일의 항공기술 개발지로 부상했고 독일항공실험연구소가 동지를 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 생산기지 역할도 했다.

서·동독으로 나뉘며 동독에 포함됐던 이곳은 물리학과 화학, 재료공학, 항공학, 우주과학 분야에 걸쳐 9곳의 연구소가 설립돼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다가, 통일 이후 서독의 기술력에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다.

그동안 일하던 무수한 연구인력이 한순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자 베를린 연방정부는 1991년 아들러스호프 유한회사(현 비스타 유한회사)를 설립해 과학기술단지로 새롭게 도약해 지금까지 성장하고



아들러스호프 첨단과학단지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있는 연구자의 모습.

있다. 놀라웠던 것은 아들러스호프는 기업의 인큐베이션을 돕기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베를린대학, 베를린자유대, 훔볼트대 자연과학 캠퍼스 등도 위치해 있다. 청년창업가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등도 다수 입주한 상태다. 산·학·연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특히, 이곳에 있는 대학들은 뛰어난 실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배출해 입주 기업 등에게 꾸준히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졸업한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활발한 창업활동을 돕고 있다.

이곳을 관리하는 유한회사 비스타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7억유로(2조3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입주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이런 지속적인 인큐베이션의 경우 초기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실패확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90% 수준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제 독일의 아들러스호프를 그저 부러워할 필요만은 없을 것 같다. 한국전력이 나주와 광

주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가 최근 기업의 투자유치 목표치를 뛰어넘는 등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밸리 주도의 스타트업과 연구소 등 기술사업화 중심의 산업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전공대가 문을 열고 연구인력 등 인재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게 된다면 아들러스호프 부럽지 않은 에너지 관련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들러스호프처럼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지원과 인큐베이션 시스템은 물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등까지 기반을 닦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금융기관, 기업, 민간기관 등 지역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청년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간다면 광주·전남지역이 ‘한국형 아들러스호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도 충분히 해볼만하다.

／베를린(독일)=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1)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서구쌍촌동 (상가주택) 토지 41평 건물 54평 운천역 3분 (코너)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6) 경기도 평택시 (주택) 토지 79평 건물 38평, 송탄역 3분 감정가 5억9천 → 최저가 2억9천	<h4>경매교육</h4> <p>1) 기초이론반 (무료)</p> <p>▶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p> <p>▶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p> <p>▶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p> <p>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p>
2)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토지 29평 건물 40평 북구청 5분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7)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상가건물) 토지 200평 건물 138평 감정가 12억 → 최저가 12억	
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	8) 전주시 완산구 (3층 상가건물) 토지 265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3분 (월세 2천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28억	
4) 첨단지구 (아파트상가) 토지 20평 건물 38평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상가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9)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4억6천	
5)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38평 건물 46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6천	10)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7억9천	
6) 남구 월사동 (주택) 토지 47평 건물 36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11) 군산시 나운동 (사무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무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	

010-6670-9800 010-7384-7800